

독일민속학과 日常 연구

독일Tübingen대학 민속학연구소의 마을에 대한 일상연구를 중심으로-

이상현

안동대학

1. 들어가며

1970 년부터 몇 년 동안, Tübingen 대학 민속학연구소에서는 마을의 일상생활 연구를 위 하여 인근의 평범한 농촌마을인 Kiebingen 마을¹ 을 조사 연구하였다. 일상(Alltag) 연구는 단순히 반복되는 일상의 연구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공간으로서의 일상에 대한 연구이며, 일반적으로 E. Husserl 의 ‘생활세계’ 혹은 ‘삶의 세계’(Lebenswelt) 에 관한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연구는 주로 일상생활 연구 혹은 일상생활세계 연구라고 칭하면서 다양한 학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상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현상학적으로 생활세계 연구를 지향하였던 A. Schütz 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후 여러 분과학문에서 다양한 이유로 일상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민속학이나 인류학과 같은 문화를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연구하는 학문분야에서도, 문화의 형성과 변화에 있어 개인과 집단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상연구를 진행 하였다.

일상연구는 독일민속학의 여러 분야 연구에 영향을 주었지만 크게 생애사 연구, 물질문화 연구, 노동자문화연구, 민중문화사, 마을 연구에 영향을 주었다.² 특히 기존 민속학에서 마을연구는 주로 마을을 공동체로 인식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개별 주민들의 생각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마을연구에 있어 일상연구의 도입과 활용은 독일민속학의 새로운 연구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발표는 우선 독일민속학의 일상연구, 특히 마을 일상연구의 대표적 연구 업적으로 평가받는 Kiebingen 마을 조사와 연구의 배경과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민속학의 일상연구의 특징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발표에서는 1960 ~ 70 년대 Bausinger 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Tübingen 대학 민속학연구소의 연구 경향과 특징을 기술하겠다. 먼저, 이 연구소의 연구 성과 중에서 1950 년대 H. Bausinger 주도 하에 진행된 이주지역 연구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할 생각이다. Kiebingen 마을 조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던 Jeggle 가 이 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였고, 또한 Kiebingen 마을 조사 역시 Bausinger 의 이주지역 조사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Kiebingen 마을 조사 연구의 과정과 특징을 분석할 생각이다. 원래 이 조사는 마을주민들의 생활과 민속에 관한 주제였으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상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발표는 이 과정을 기술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독일민속학의 일상 연구 중에서 Tübingen 대학 민속학연구소, 특히 Jeggle 교수의 일상 연구를 분석하려는 이유는 본 발표자가 공부하였던 연구소이기 때문에, 따라서 연구소의 연구 경향과 특징을 상대적으로 자세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연구소의 연구소장을 오랫동안 역임한 Bausinger 교수의 여러 연구 업적이 이미 일본어로 번역, 소개되어 있어, 일본 민속학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독일 대학의 다른 민속학연구소보다 이해의 폭이 넓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³ 그리고 Jeggle 교수는 연구소의 연구진 중에서 가장 먼저 일상 연구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조사와 연구를 수행한 까닭에, 본 발표에서는 Jeggle 가 실행한 Kiebingen 마을의 조사와 연구를 중점적으로 고찰해보겠다.

2. Tübingen대학 민속학연구소의 이주지역 연구: 마을의 사회학적 연구

終戰 직후인 1945년, Tübingen 대학 민속학연구소는 동구권에 거주하다 종전에 서독으로 이주한, 이른바 ‘고향에서 추방당한 독일사람들(Heimatvertrieben)’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시 독일의 여러 연구소에서는 독일인들이 서독으로 이주하기 전에 공유했던 언어와 민속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조사도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⁴

그러나 Tübingen 대학 민속학연구소는 1950년대 중반부터 이 사업의 내용과 방법을 바꾸어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새로운 사업 방향 설정과 추진은 이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H. Bausinger 가 중심이 되어 다른 두 명의 연구원과 함께 진행하였다.⁵ 조사 대상은 전후(戰後)에 조성된 Baden-Württemberg 州 21개 이주 지역으로, 이 지역에는 동구권에서 이주한 독일계 주민, 통일되기 이전 동독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 그리고 서독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거주하였다.

21개의 이주 지역은 지형상의 위치, 그리고 거주 인구의 규모와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한 형식을 바탕으로 기술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주 지역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다섯 항목은 필수적으로 조사 기술하였다. 첫째로 이주 지역의 역사 특히 戰後 이주 지역의 역사, 두 번째로 지형적 지리적 특징, 세 번째로 인구 구성의 특징, 네 번째로 사회 및 종교 생활의 특징, 마지막으로 이주 지역의 여러 문제점 등이었다.

이 다섯 가지 기술 항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주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는 개발의 역사 및 건설 주체를 주로 기술하였다. 지형적, 지리적 특징으로는 이주 지역의 생태학적 환경 그리고 주변 지역과의 관계 등을 기술하였다. 인구 구성의 특징으로, 이주 지역 주민들의 출신 지역과 직업 등을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사회생활의 특징으로는 가족 및 친족 생활 그리고 이웃 주민들과의 관계를 기술하였고, 지역 내 여러 동호회 활동, 예를 들어 스포츠 동호회 활동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종교 생활의 특징으로, 지역 주민들의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 교회의 활동과 그 특징을 언급하였다. 문제점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특징이 고려되지 않은 문화 시설의 문제, 출신 지역의 문화적 차이에 따른 이웃 간의 문제, 이주 지역의 새로운 문화로 인해 발생하는 가족 간의 문제 등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제 2부에서는 21개 이주 지역의 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크게 이주 지역에서 조직 운영되는 모임과 사회조직, 새로운 이주 생활에 활용되는 민속, 마지막으로 고향에 대한 인식 등이었다.

이주 지역으로 온 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 모임과 조직을 운영하였다. 연구진들은 이주 지역의 사회 모임과 조직을 이주민들의 출신 지역, 세대, 거주 위치 등에 따라 구별하여 기술하고, 조직과 모임의 기능과 역할도 분석하였다.

새로운 이주 지역 연구의 두 번째 분석 대상은 문화적 자산이다.⁶ 이주 지역은 여러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주민들은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주 이전 지역에서 전승되고 배운 문화에 대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들의 문화적 자산에 관해서는 이미 기존의 민속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분야였지만, 이주 지역의 연구진들은 이주 지역에서 새롭게 변형된 문화자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변화된 형태의 새로운 의미, 그리고 변화의 주체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다음 분석 대상은 이주 지역의 계획 수립과 운영으로, 주로 이주 지역 설계에 참여한 회사의 이주 지역 계획 수립의 특징과 전개 과정을 분석하였다. 특히 이주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기술하였고, 이와 관련된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주 지역 주민들의 고향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고향에 대한 인식은 주로 시간적, 공간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는데, 특히 과거 특정 공간에 대한 기억과 회상이 고향 인식의 바탕이 되었다. 동구권에서 이주한 이주민의 경우에는 고향에 대한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와 같은 조사의 연구진들은 이주 지역 주민들의 고향 인식의 단계와 각 단계별 문화적 자산의 활용 방법, 출신 지역에 따른 고향 인식의 차이점, 그리고 정착 시기별 고향 인식의 변화 등을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고향 인식은 정착 초창기의 심리적 불안감 증대, 같은 고향 사람과 접촉하면서 향우회와 같은 사회조직의 결성, 다양한 방법으로 고향에 대한 관심 표명 등과 같은, 3 단계로 전개된다고 보았다. 다만 이러한 고향 인식 및 활동 단계 그리고 활용된 문화적 자산의 종류는 이주민의 출신지별, 세대별 그리고 거주 기간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진들은 고향에 대한 이주민들의 인식상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독일민속학 연구의 핵심 용어 중 하나인 ‘部族 (Stamm)’ 에 대하여 논하였다. 특정 지역에서 같은 문화를 공유하면서 독일어를 사용하는 집단을 의미하는 部族은, 자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타 지역 주민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할 때 활용되는데, 이러한 모습은 조사 대상인 이주 지역에서도 목격되었다. 연구진들은 이 용어가 민속학 연구에서 객관적 사실로 통용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한편, 이 조사는 민속학적·사회학적 조사라는 副題가 붙을 정도를 사회적 맥락을 중요시했다. 또한 이 연구는 기존 민속학의 마을조사처럼 특정 민속이 지속되는 현상으로서의 마을,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으로서의 마을이 아니라 戰後 독일의 변화된 마을 사회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업적을 평가받고 있다.⁷

Bausinger 는 이 이주 지역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Folklorismus 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추구하였고, 이의 문화산업과 관광에 대해서도 새롭게 인식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⁸. 그리고 민속학의 기본 개념들, 이를테면 連続性, 共同体, 部族, 規範 등에 대한 비판적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가 1959 년 Tübingen 대학 민속학연구소의 소장으로 부임한 이후 연구소의 연구 방향도 변화했는데, 설화 대신에 통속문학 연구, 민요 대신에 가요 연구, 간존물의 역사적 유래보다는 사회적 기능에 대한 연구, 방언의 언어학적 연구 대신에 언어사회학적 연구를 지향하였다.⁹

1960 년대까지 Tübingen 대학 민속학연구소는 기존 민속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1970 년대 특히 Falkenstein 학술모임 이후부터는 민속학의 새로운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3. Tübingen대학 민속학연구소의 명칭 변경과 Kiebingen연구: 마을의 일상문화 연구

‘68 학생혁명’ 이 서부 유럽과 미국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1969 년, 독일 Detmold 에서 독일민속학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학술대회에서는 독일민속학의 정치 사회적 입장, 민속학적 이론 그리고 민족·민중을 의미하는 ‘Volk’ 라는 용어의 지속적 사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1 년 후 Falkenstein 에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기획하였다.

이 특별학술대회에 참여한 학자들은 ‘민속학은 대상과 주체들의 상호 작용 속에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전달을 분석하는 학문이라는 것’, 그리고 ‘사회 문화적 문제 해결에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 이라는 것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 이후 독일 대학의 민속학 연구소들은 문화와 ‘Volk’ 에 대한 각자의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소의 명칭을 유지 혹은 개명하거나 새로운 연구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학술대회 이후 Tübingen 대학 민속학연구소는 명칭을 Ludwig-Uhland-Institut für Empirische Kulturwissenschaft(이하 EKW 연구소)로 변경하였다. 연구소 명칭 변경에는 Falkenstein 학술대회 논의뿐 아니라 1970년대 독일대학교육개혁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당시 대학교육개혁은 독일의 쉰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공 분야에 따라 단과대학을 세분하고 대학생들이 여러 개의 전공을 이수하도록 했으며, 연구소 운영 규정을 연구소 교수에게 일임하도록 했다.

1969년, EKW 연구소에서 'Württemberg 지역의 유대인 마을들'이란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은 Jeggle(당시 연구원)은 1970년부터 몇 년에 걸쳐 Kiebingen 과 인접 마을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는 학술대회에 발표하거나 잡지에 기고하였고,¹⁰ 단행본으로도 출간하였다.¹¹

Kiebingen 마을에 대한 조사는 원래 Bausinger의 이주지역 조사처럼 특정 마을의 變化像을 조사하고, 민속의 변화된 의미를 분석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조사팀은 마을 주민과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하여 민속과 관련된 다양한 마을 행사를 주관하였는데, 이러한 조사팀의 활동은 지역 신문에 보도될 정도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었고, 덕분에 조사도 원만히 진행되었다.

다만 특정 민속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을 내 특정 인물의 영향력 혹은 기타 정치·사회 영역에서의 영향력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얻을 수 없었다. 조사팀은 마을 주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마을 외부사람에게 공개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다양한 대책을 강구했는데, 그 과정에서 Kiebingen 마을 주민이자 Tübingen 대학의 학생인 Albert Ilien 를 만나게 되었다.

그는 마을 내부의 동호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조사팀처럼 마을 문화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게다가 그의 부인은 마을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여서 마을주민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다. 그는 조사팀에 참여하였고, 조사팀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마을주민들에게 전달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그가 조사팀에 합류하면서 '조사 지역과 사람들의 일상세계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성격'¹²(eigensinnigen Charakter der untersuchten empirischen Welt)으로, 즉 마을 주민의 독특한 일상세계에 대한 연구로 그 조사연구의 목적도 변경되었다. 더불어 마을 사람들의 독특한 생각과 행동이 어디서 출발했으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현재 마을에 대한 조사뿐 아니라 역사적 자료의 수집·정리도 이뤄졌다.

조사팀은 Kiebingen 마을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에서 보이는 독특한 특징으로 마을 주민 상호간의 불신, 재산에 대한 강한 집착, 일관성 없는 가정교육, 깨끗함에 대한 집착 등을 꼽았다. 또한 마을 주민들의 가난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 均等相續과 多産에 있지만, 이것들이 이웃에 대한 不信, 형제자매 간의 葛藤, 遺産相續 과정에서의 詐欺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유발했다고 분석했다. 조사팀은 마을 사람들의 이러한 문화적 특징이, 19세기 이 마을이 농촌마을에서 노동자마을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등장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Kiebingen 마을에 관한 역사적 자료는 1790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 아카이브에 빠짐없이 축적되어 있었는데, 조사팀은 특히 1820년대부터 1890년대 후반까지 마을의 變化像을 분석하기 위해 당시 마을 주민들의 토지 소유 관계, 마을 내의 위상 등에 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위 연구에서는 역사적 자료를 총 다섯 부분으로 나누고, Kiebingen 마을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당시 마을 주민들의 생활세계를 분석하였다. 우선 농업을 주업으로 하던 Kiebingen 마을이 산업화, 근대화되는 과정의 중요한 특징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마을 내 수도원의 매각과 마을 주민의 구입, Neckar 江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官과 주민들의 갈등 및 협동, 행정 체계의 변화, 교회의 역할 변화 등을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1823년 작성된 마을 지도에 나타난 집과 사람들에 대해 기술하였다.

위 연구의 두 번째 분석 대상은 마을 주민들, 특히 농민들과 그 노동의 특징이다. 즉, 농경지 활용의 특징, 농산물의 종류와 변화 그리고 생산량의 변화를 기술하였고, 행정 단위인 ‘Gemeinde’가 농사를 위한 協議體로 변화하는 과정을 언급하였다. 더불어 의식주 생활의 특징, 家事 노동에 있어 남녀노소의 역할 분담 그리고 가족 재산의 분배 및 통합의 양상을 기술하였다. 다음으로 출생 기록과 불륜으로 인한 출생 문제의 기록을 토대로 마을 주민들의 성 생활을 분석하였다. 당시는 여성들의 고된 노동으로 인해 유아사망률이 높았고, 하위 계층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사생아의 수도 많았다. 1970년대 조사 당시, 아이들에 대한 주민들의 상대적 무관심은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마지막으로 19세기 마을축제에 관하여 분석했는데, 노동의 강도, 빈부격차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마을의 존속을 위해 마을 축제가 지속되었다고 보았다.

세 번째 연구 대상인 마을 주민의 재산 유지와 활용에 관한 논의에서는 재산의 보유 형태에 따라 마을 주민들을 상류층, 중류층, 하위층 등 세 계층으로 구분하고 1823년부터 1897년 사이 각 계층의 재산 변화 과정을 조사하였다. 또한 재산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하여 여성 배우자의 계층과 소속, 출신 지역을 조사하였고, 재산 분배 과정도 추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친족 개념이 강화되는 과정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제시하였고, 각 계층별 사례를 통해 부에 대한 마을 주민의 의식도 분석하였다.

네 번째 주제는 마을 주민들의 인지 체계의 특성으로, 본인과 본인이 포함된 집단, 타인, 사물(집, 농토, 가축 등), 자연 등으로 나누어 이들에 대한 주민의 인식 특성을 기술하고 분석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전반적으로 가족 및 친족 간에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고 타인에 대해서는 불신감이 강했다. 사물에 대해서는 강한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고 자연에 대해서는 위협적이고도 制御가 필요한 대상이라고 인식했다. 마을 주민의 인지 체계에 대한 분석은 이전의 조사 내용들을 주민들의 입장에서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주관적 생각을 드러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본 연구의 마지막 연구 대상은 마을의 역동적인 변화상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농작물의 재배와 농기계 도입 등으로 대표되는 농업경제의 특성, 마을 내 수공업의 변화 과정과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개인 회사의 형성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하여 언급하였고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이 지속적으로 프로레타리화(Proletarisierung) 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마을 변화의 역동적 요인에 대한 분석은 산업화와 근대화 혹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마을 주민의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 실행되었다. 특히 Jeggle는 19세기 Kiebingen 마을의 변화상을 주목했는데, 그는 노동과 소유 관계의 변화를 토대로 사회, 정치, 종교 생활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Kiebingen의 조사연구는 기존의 민속학과 달리 마을을 주민들의 생존 공간, 다른 주민들과의 공존의 현장으로 전제하고 분석했다. 그리고 마을을 공동체로 인식하던 기존의 연구와 다르게 마을을 계층, 성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분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마을 주민들의 생각과 행동을 중심으로 그 집단들의 생존 방식, 자산 획득과 유지를 위한 노력, 기본적 본능의 충족 방법과 사회적 制裁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조사연구는 주민 생활의 淵源과 그 변화 과정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마을 주민의 일상생활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연구를 시도했다.¹³ 마을 주민의 역사적 경험이 고려된 일상생활 연구는 Jeggle의 일상에 대한 인식에서 명확하게 들어나는 데, 그는 ‘일상이란 다양한 개인과 집단이 생활하는 특별한 세계로서, 개인 혹은 집단의 역사적 경험이 반영된 특정 대상에 대한 그들의 인식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¹⁴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는 Kiebingen 사람들이 토지, 자동차, 가축 등의 재산, 아이들, 친척 혹은 이웃 사람에 대하여 민속학자 혹은 대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려고

하였다.

Jeggle 와 조사원들은 마을 주민들의 다양한 일상생활을 분석하면서, 여타의 민속학, 인류 학자들처럼 개별 구성원들이 타인들과 생활하면서 형성하고 변화시키는 문화를 주목했다. 특히 노동과 생산방식을 토대로 문화가 형성된다는 마르크스적인 문화 개념을 바탕으로 이 마을의 19 세기 일상생활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문화 개념은 비단 Jeggle 뿐만 아니라 EKW 대부분의 교수진들이 공유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Jeggle 의 일상생활에 관한 논문이 수록된 민속학개론서에서 문화 분야를 기술한 G. Korff는 문화는 ‘사회-생태적 카테고리로서 삶의 방식’ 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문화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물질적 환경이 검토되어야 하며 동시에 개별 시대와 공간에 유통되고 있는 규범, 가치, 태도 등도 이와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¹⁵

마르크스적인 문화 개념은 同時代 동독의 민속학자들이 수행한 ‘문화와 삶의 세계’ (Kultur und Lebensweise) 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Falkenstein 의 특별학술대회에서 계층에 따른 문화 연구, 특히 피지배층인 여성, 노동자 등에 대한 연구를 주장한 Tübingen 대학 민속학연구소 연구원들은 동독민속학의 문화 개념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Jeggle 또한 일상생활에 대한 민속학적 연구의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경제적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는 일상생활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 Henry Lefebvre 의 이론을 적극적으로 원용하였다.¹⁶

그러나 Jeggle 의 Kiebingen 마을 연구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의 공동체성보다 계층에 따른 생활 연구가 지나치게 강조되었고, 특히 마을의 상류층에 대한 분석에서는 다른 계층보다 그 내용이 적을뿐더러 부정적으로 기술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19 세기부터 1970 년대까지 Kiebingen 마을의 역사가 누락되어 있다는 것도 비판의 대상이었다. 예를 들어, 나치 정권 당시 이 마을의 상류층과 하류층의 관계가 이전과 동일하게 지속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 빠져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4. 그 이후 독일민속학의 일상 연구

Jeggle 의 Kiebingen 마을의 일상연구 이후 독일민속학에서는 다양한 일상 연구가 진행되었다. 먼저 일상사(日常史)에 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Jeggle 의 Kiebingen 마을 조사 작업에 참여한 Wolfgang Kaschuba 와 Carola Lipp 은 Kiebingen 마을을 연구하면서 연구 대상과 시기 그리고 연구 방법을 Jeggle 와 달리하여 마을의 역사 특히 일상사 연구를 추진하였다.¹⁷

우선 연구 대상 시기를 산업화 시기에 접어들기 이전인 18 세기 중반부터 나치시대까지로 약 150 여년간으로 설정하였다. 연구 목적은 산업화시대로 변해가는 마을 사회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기존 마을의 생활의 지속과 변화에 대한 분석이었다. 구체적으로 변화하기 이전의 마을의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적인 균형이 산업화 시대로 변화되면서 일부는 파괴되나 마을 주민의 생존을 위하여 기존 요소들의 균형이 새롭게 재통합되는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실행되었다. 연구 대상으로는 가족 및 친족 그 외의 사회 조직 그리고 마을 내의 여러 직업군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또 다른 특징으로 마을주민들의 역사적 경험을 주요 개념으로 활용하여, 이를 바탕으로 산업화 이전 시기에 마을의 불평등 구조 속에 형성된 경험이 산업화 과정에 표현되는 방식을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가족 혹은 그 외의 사회 생활에서 도덕 혹은 행동 규범의 지속과 변화 요소를 기술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기본적 특성을 마을 주민의 역사적 경험으로 간주하여 연구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은 영국 역사학자 E. P. Thompson 이 영국 노동자들을 분석하면서 사용한

개념이고 이를 두 연구자들은 Kiebingen 마을 주민들의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는 근거를 분석하는데 이 개념을 활용하였다. 두 연구자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50년간 Kiebingen 마을 주민들의 사회적 변화 속에 일상생활의 규칙을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두 연구자의 Kiebingen 마을 연구는 이전 Jeggle의 연구와 연구 대상과 방법에 있어서 일정 부분 차이가 있지만, 마을이라는 미시적 세계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개인과 집단의 생각과 행동을 분석하였다는 측면에서 Jeggle의 마을 연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았다. 또한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Jeggle가 마을의 일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정치적 억압 그리고 경제적 불평 등의 측면을 강조한 Lefebvre 일상연구의 이론을 연구에 활용하였다. 그의 이론을 연구에 활용한 경우에 일상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며 따라서 그의 마을 연구는 독일민속학의 일상사 연구 발전에도 도움을 주었다.¹⁸

또한 Kaschuba의 경우, 마을의 일상사 연구를 바탕으로 노동자 문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19세기부터 20세기 초의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농촌 지역에서 이주하였고 이들 역시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주 이전에 농어촌 지역의 경험을 활용하였다는 점에 관심을 갖고 노동자 문화를 연구하였다.¹⁹ 노동자 문화연구는 기존 민속학에서 거의 다루지 않았던 분야였고 그의 연구 이후 민속학에서 노동자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다만 그의 연구는 독일 민속학계보다는 독일 역사학계 특히 일상사 연구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독일민속학의 일상사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예를 들어 마을의 경우 마을주민의 생각과 행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역사적 문서를 새롭게 읽고 재해석한다. 또한 Jeggle처럼 현재 마을의 일상을 과거의 생활의 연속에서 이해하고 분석하려는 민속학자는 역사적 자료 이외에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현지조사 자료에도 관심을 갖고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를 조사대상자의 특징 그리고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맞게 정리하고 해석 연구를 하며,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현지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강조될 수밖에 없다.

Jeggle는 Kiebingen 마을 조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대상의 일상생활이 고려된 현지조사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착수하였고, 독일민속학에서는 최초로 현지조사에 관한 연구서를 동일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연구자와 함께 공저(共著)로 출판하였다.²⁰ 그는 이 책에서 독일민속학 현지조사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고 일상 연구를 위한 조사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다른 연구자들은 일상 연구를 위한 현지조사 전략과 방법 그리고 근본적 한계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독일민속학에서 일상사 혹은 일상문화 등의 일상에 관한 연구 그리고 현지조사 방법론의 구축은 Jeggle의 Kiebingen의 연구의 직접적 영향 혹은 EKW 연구소의 연구의 영향만으로 볼 수는 없다. 사회학, 역사학 등의 민속학의 인접 분야의 일상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독일민속학의 일상 연구에 대한 관심과 발전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다.

우선 독일 역사학계는 1970년대부터 ‘맨발의 역사가’(Barfußhistoriker)를 자처하는 역사학계에 비주류 젊은 지식인들의 ‘역사 공방(工房)’(Geschichtswerkstatt) 운동에서 일상사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들은 기존 독일역사학계는 근대화 산업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역사적 사회과학에 대하여 비판하였다. 이들은 서민(kleine Leute)의 의식주, 노동과 여가 생활, 가족 및 이웃 관계 등에 일상적 모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독일민속학계의 일상사 연구에 도움을 주었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독일 민속학의 물질문화 연구는 주로 외형적 특징, 주택 양식, 의상 형태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였다. 그러나 일상사에 관심 있는 독일민속학자는 일상사에 관한 역사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주택의 외형에 대한 연구보다는 특정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주거 문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²¹

본 발표는 기본적으로 EKW 연구소의 일상연구에만 주목하였고 다른 대학의 민속학연구소의 일상 연구를 소개하지 않은 상태로 독일민속학의 일상연구의 시작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문제점을 지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민속학에서 가장 먼저 일상연구를 표방하였고 1970년대 Falkenstein 특별학술회의 이후 연구소 명칭을 문화인류학으로 명칭 변경을 시도한 Gereverus의 일상연구에 대한 소개를 하지 못했다. 이로 인하여 독일민속학의 일상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생각된다.

본 글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독일민속학 그리고 인접 분야의 일상연구에 대한 관련 학계의 비판을 간략하게 제시하겠다. 일상연구는 특정 시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과 행동을 문화 개념으로 분석하는 연구이다. 또한 연구 대상이 다르지만 역사적 변화 과정에 따라 연구 대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 혹은 변화시킨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일상 연구 특히 일상사에 대한 연구의 한계 및 문제점이 지적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나치시대 연구 특히 이 시대의 생애사에 관한 연구에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이 시대에 대한 기억은 극단적으로 구분되어 이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어렵다.

이와 더불어 여성에 대한 일상사 연구에 대한 한계가 지적되었다. 여성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존 역사학 연구에서는 별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일상사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히 연구되었다. 그러나 특정 시기의 여성의 생각과 행동을 분석하는 데 있어, 당시 가족 혹은 여성 문화와 관련하여 분석하지 않고 현재 여성들의 생각을 투영하여 연구하거나 당시 여성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연구하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일상 연구의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일상 연구자들이 특정 새로운 생활과 행동을 문화의 관점으로부터 연구 대상을 해석하는 경향과 관계가 있다. 예를 들어, 유럽 여러 국가에서 외국인 혐오증의 배경과 과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이를 문화적인 경계 전략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여기에 동원되는 요소들 혹은 사회적 문제 등을 바탕으로 이러한 행동의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분명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서 시작된 것으로 객관적 이해에 앞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일상과 문화 연구는 여러 분과학문에서 연구된 것처럼 다양한 이론 그리고 방법론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연구 분야이다. 그러나 일상 연구는 현재 혹은 역사 속에서도 주류 세력은 아니지만 특정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이해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인종문제, 다양한 정치적 투쟁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행동이 등장하는 이 시대에 있어 일상 연구가 인간 이해라는 학술적 연구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비판적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²²

이외에도 일상 연구는 학술적 실천 활동에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일상 연구의 학문적 성과를 바탕으로 여러 박물관에서 특정 시기의 일상 문화에 대하여 전시하였으나, 대중적 관심을 끌지 못하였고 연구자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았다. 실패의 원인으로 전시 대상 및 기법의 문제 혹은 일상문화의 효과적 전시를 위한 대상 선정의 원칙이 제시되지 못한 점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는 박물관 전시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 연구의 대상 선정과 방법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여 주는 예로 보여진다.²³

독일민속학의 일상 연구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 배경과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1990년 독일민속학을 비롯하여 일상 연구를 진행한 분과학문에서 제기된 일상 연구의 문제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독일민속학의 일상 연구 방법과 이론을 활용하여 민속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려는 나라에서는 이러한 비판적 목소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注

- 1 Kiebingen, 마을은 독일 남서부의 Baden-Württemberg 주(州)에 속해 있으며 독일 남부 지역 가톨릭 행정 본부 가 있는 Rottenburg 시 그리고 교육 도시인 Tübingen 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에 관한 최초 기록은 1204 년에 등장하며 당시에는 Hohenberg 귀족의 영토였고 1381 년에 오스트리아에 팔렸고 1806 년 Württemberg 왕의 영토로 귀속된다. 20 세기 들어 행정적으로 Rottenburg 시에 속해 있다 전후(戰後)에 Tübingen 시 그리고 1971 년에 다시 Rottenburg 시에 속하게 된다.
- 2 Carola Lipp, 'Alltagsforschung im Grenzbereich von Volkskunde, Soziologie und Geschichte', *Zeitschrift für Volkskunde* 88, 1993, pp.12 ~ 19.
- 3 참고로 본 발표를 준비하면서 일상연구 특히 독일의 일상연구에 관한 일본민속학의 연구는 法橋 量, 2010, 「現代ドイツ民俗学のブルーリズムー越境する文化科学への展開ー」, 『日本民俗学』 263 号을 참고하였음.
- 4 이에 대한 연구를 독일민속학자들은 이른바 Sprachinselforschung(고립된 언어연구)로 표현하였고 연구 내용은 즉 동구권에서 다른 민족과 함께 거주하였던 독일인들의 독일어 연구였다. 이에 관한 연구는 점차로 민족 교류(Interethnik) 연구로 변화된다, 이에 관해서는 Ingeborg Weber-Kellermann/Andreas C. Bimmer, *Einführung in die Volkskunde/Europäische Ethnologie*, Stuttgart, 1985, p.131 ~ 133.
- 5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책으로 출판되었다. Hermann Bausinger, Markus Braun, Herbert Schwedt, *Neue Siedlungen, Volkskundlich-soziologischen Untersuchungen des Ludwig-Uhland-Institut Tübingen*, Stuttgart, 1958.
- 6 인용한 책에서는 특정 재산 혹은 소유물을 의미하는 Güter 라는 제목으로 이 항목을 기술하고 분석하였으나, 대부분 분석 대상이 방언, 격언 등의 언어민속, 전통의상, 향토음식 등의 물질민속 그리고 민간신앙 등의 종교 민속이어서 본 발표에서는 이 용어를 문화적 자산이라고 번역하였다.
- 7 Ingeborg Weber-Kellermann/Andreas C. Bimmer, *Einführung in die Volkskunde/Europäische Ethnologie*, Stuttgart, 1985, p.130. 본 개론서에서 또 다른 연구 업적으로는 Wilhelm Brepohl, *Industrievolk im Wandel von der agraren zur industriellen Daseinsform, dargestellt am Ruhrgebiet*, 1957 을 들었다.
- 8 Hermann Bausinger, *Volkskunde. Von der Altertumsforschung zur Kulturanalyse*, Berlin, 1971, p.141 ~ 209.
- 9 Hermann Bausinger, 'Zur Entwicklung des Ludwig-Uhland-Institutes', *Attempto*, Heft 49/50, 1974, pp.60 ~ 67.
- 10 Kiebingen 에 관한 최초의 글은 Utz Jeggle, 'Urbanisierung ländlicher Entscheidungsstrukturen'. Gerhard Kaufmann(Hrsg.), *Stadt-Land-Beziehung. Verhandlungen des 19. Deutschen Volkskunde-Kongresses in Hamburg vom 1. bis 7. Oktober 1973*, Göttingen 1975, pp. 65 ~ 80 이다. 이 글은 당시 독일민속학에서 도시와 관한 주제로 개최한 학술대회에서 발표하였다. 이외에 Kiebingen 관한 다른 글로는 Albert Illen und Utz Jeggle, 'Zum Recht der kleinen Leute auf wissenschaftliches Verstandenwerden, am Beispiel Hausens, einer Gemeinde im Urbanisierungsprozeß', Konrad Köstlin und Kai Detlev Sievers, *Das Recht der kleinen Leute*, Berlin, 1976, pp.88 ~ 97, Utz Jeggle, Albert Illen, Willi Schelwies, *Verwandtschaft und Verein. Zum Verhältnis zweier Organisationsformen des dörflichen Lebens'. Forschungen und Berichte zur Volkskunde in Baden-Württemberg*. Bd.3, 1977, pp.95 ~ 104.
- 11 Utz Jeggle, *Kiebingen - eine Heimatgeschichte*, Tübingen, 1977, Albert Illen, *Prestige im dörflicher Lebenswelt*, Tübingen, 1977, Albert Illen und Utz Jeggle, *Leben auf dem Dorf. Zur Sozialgeschichte des Dorfes und Sozialpsychologie seiner Bewohner*, Köln und Oplanden, 1978.
- 12 Herbert Blumer, 'Der methodologische Standort des symbolischen Interaktionismus', Arbeitsgruppe Bielefelder Soziologen(Hg.), *Alltagswissen, Interaktionismus und Ethnomethodologie*, Hamburg 1973, pp.104. Utz Jeggle, *Kiebingen - eine Heimatgeschichte*, 앞의 책, 278 쪽에 재인용하였고 이 글은 Jeggle 의 Kiebingen 조사와 관련된 여러 글에서 인용되었음. 그리고 인용된 글은 '조사된 경험적 세계의 고유한 성격' 을 번역할 수 있으나 본 발표문에서는 의역하였다.
- 13 Utz Jeggle, *Kiebingen - Eine Heimatgeschichte*, p. 280.
- 14 Utz Jeggle, 'Alltag', Hermann Bausinger 외, *Grundzüge der Volkskunde*, Darmstadt, 1978, pp.125
- 15 Gottfride Gorff, 'Kultur', Hermann Bausinger 외, 앞의 책, pp.62.
- 16 Utz Jeggle, 'Alltag', Hermann Bausinger 외, 앞의 책, pp.103 ~ 104.
- 17 Wolfgang Kaschuba/Carola Lipp, *Dörfliches Überleben. Zur Geschichte materieller und sozialer Reproduktion ländlicher Gesellschaft im 19. und frühen 20. Jahrhundert*, 1992, Tübingen.,

- 18 Wolfgang Kaschuba, *Einführung in die Europäische Ethnologie*, München, 2003, p.127.
- 19 Wolfgang Kaschuba, 'Volkskultur und Arbeiterkultur als symbolische Ordnungen. Einige volkskundliche Anmerkungen zur Debatte um die Alltags- und Kulturgeschichte', Alf Lüdtke(Hrsg.), *Alltagsgeschichte. Zur Rekonstruktion historischer Erfahrungen und Lebensweisen*, Frankfurt 1989, pp.119 ~ 223.
- 20 Utz Jeggge(Hrsg.), *Feldforschung. Qualitative Methoden in der Kulturanalyse*, Tübingen, 1984.
- 21 Projekt Gruppe, 'Geschlechtsspezifische Muster der Raum- und Dingeaneignung'. *Gestaltungsspielräume. 4. Tagung der Kommission Frauenforschung in der Volkskunde*, Tübingen, 1992.
- 22 Wolfgang Kaschuba, 'Kulturalismus: Vom Verschwinden des Sozialen im gesellschaftlichen Diskurs' *Zeitschrift für Volkskunde* 91, 1995, pp.27 ~ 46.
- 23 Carola Lipp, 앞의 글, pp.26 ~ 27.

参考文献

- Bausinger, Hermann/Braun, Markus/ Schwedt, Herbert, 1958, *Neue Siedlungen, Volkskundlich-soziologischen Untersuchungen des Ludwig-Uhland-Institut Tübingen*, Stuttgart.
- Bausinger, Hermann, 1971, *Volkskunde. Von der Altertumsforschung zur Kulturanalyse*, Berlin.
- Bausinger, Hermann/Jeggge, Utz/Korff, Gottfried/Scharfe, Martin, 1978, *Grundzüge der Volkskunde*, Darmstadt, .
- Blumer, Herbert, 1973, 'Der methodologische Standort des symbolischen Interaktionismus', Arbeitsgruppe Bielefelder Soziologien(Hg.), *Alltagswissen, Interaktionismus und Ethnomethodologie*, Hamburg.
- Illen, Albert, 1977, *Prestige im dörflichen Lebenswelt*, Tübingen.
- Illen, Albert und Jeggge, Utz, 1978, *Leben auf dem Dorf. Zur Sozialgeschichte des Dorfes und Sozialpsychologie seiner Bewohner*, Köln und Oplanden.
- Jeggge, Utz, 'Urbanisierung ländlicher Entscheidungsstrukturen'. Gerhard Kaufmann(Hrsg.), 1975, *Stadt-Land-Beziehung. Verhandlungen des 19. Deutschen Volkskunde-Kongresses in Hamburg vom 1. bis 7. Oktober 1973*, Göttingen.
- Jeggge, Utz/ Illen, Albert/Schelwies, Willi, 1977, 'Verwandschaft und Verein. Zum Verhältnis zweier Organisationsformen des dörflichen Lebens'. *Forschungen und Berichte zur Volkskunde in Baden-Württemberg*. Bd.3.
- Jeggge, Utz, 1977, *Kiebingen - eine Heimatgeschichte*, Tübingen.
- Kaschuba, Wolfgang/Lipp, Carola, 1992, *Dörfliches Überleben. Zur Geschichte materieller und sozialer Reproduktion ländlicher Gesellschaft im 19. und frühen 20. Jahrhundert*, Tübingen.
- Kaschuba, Wolfgang, 1995, 'Kulturalismus: Vom Verschwinden des Sozialen im gesellschaftlichen Diskurs', *Zeitschrift für Volkskunde* 91.
- Kaschuba, Wolfgang, 2003, *Einführung in die Europäische Ethnologie*, München.
- Lipp, Carola, 1993, 'Alltagsforschung im Grenzbereich von Volkskunde, Soziologie und Geschichte', *Zeitschrift für Volkskunde* 88.
- Lüdtke, Alf(Hrsg.), 1989, *Alltagsgeschichte. Zur Rekonstruktion historischer Erfahrungen und Lebensweisen*, Frankfurt.
- Weber_Kellermann, Ingeborg/C. Bimmer, Andreas, 1985, *Einführung in die Volkskunde/Europäische Ethnologie*, Stuttgart.